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6

충현의 만나

2008

가정예배 역대상 · 역대하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위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교재

6

2008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역대상 · 역대하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마 16:24)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낚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큰 구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히 2:3)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온 땅을 덮었고

죄인들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행 26:16~29)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눅 4:18~19)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요 14:1~9)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2008년 6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매일 성경묵상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5)

첫 사람 아담을 시험하였던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중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1절)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던 사탄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교만하여진 다윗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고 곧 회개합니다.(8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13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육백세겔 값으로 사서 여호와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을 늘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이 내려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대답을 찾으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몸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체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대상 21: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시험을 늘 이기게 하옵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예배와 집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 (1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억하게 하는 그곳이 나중에 성전의 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터' 라고 칭하셨습니다. (고전 3:11) 또한 주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2:21)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은혜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엡 2:22)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짧은 본문 속에 '준비하였다' 는 표현이 다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며,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의식 속에 빠가 굳은 우리는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채 십자가보다 거룩한 행위와 외식을 앞세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 정죄를 받습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대상 22:1)

기도 제목 ① 십자가 터 위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이 늙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레위인들을 부르고 게르손과 그합과 므라리 각 족속을 따라 반열을 나누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호와를 분향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받드는 자로 구별되었습니다.(13절) 그들은 구별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무리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벧전 2:5)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24~32절)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둘째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절기에 따라 명하신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지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는가? 매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함으로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걷기 원합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와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대상 23:32)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제사장의 반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네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분을 맡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손의 수가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을 나누는 원리는 차별이 없는 공평의 원리였습니다.(5절) 이 원칙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2)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여호와와 정해진 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19절)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다. 오직 부르신 이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로 충성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벗기려 해도 양과 같은 우리의 심령은 벗기면 또 그대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으며,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 이해시키려 하거나 설득하며 주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전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대화가 될 때 차별이 없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대상 24:5)

기도 제목 ① 오직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운 다음에 여호와와 성호를 찬송하기 위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신령한 노래' (1~3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삽과 헤만 그리고 여두둔의 자손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은총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위하여 구별된 288명은 24분류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특히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익숙한 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7절) 즉, 그들은 철저히 준비되고 훈련된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롬 12:1) 그 말씀 속에는 십자가 구속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기초한 헌신되고 준비된 예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구원의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천국 찬송이 샘솟는 것을 느끼십니까? 무의식 가운데 성령이 입술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십자가만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효가 이백 팔십팔 명이라"(대상 25:7)

기도 제목 ①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매순간 찬송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충만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와와의 성전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협력하여 온 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와의 문지기는 오벨에돔의 아들들과(4~8절) 므라리의 아들들로(10~11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다윗 왕의 철저한 헌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역할은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찬양대원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창고지기를 맡은 레위인들은 여호와와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바친 헌물과 성전 기구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예복과 그릇들, 매일 여호와께 드릴 예물들을 보관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실함으로 수송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곧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물질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중한 일이기에 지극히 하찮아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돕는 이들도 반드시 필요한 지체입니다. 성전의 거룩한 일꾼들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음에도 청지기로서 겸손함보다는 특권을 가진듯 성도들에게 교만한 마음과 권위의식으로 대하는 일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자존심과 분노와 권위가 가득찬 명령의 언어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낮아진다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청지기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대상 26:12)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며 신실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징계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의 충고로(시 119:24)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 나갑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다윗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 다음에야 군대 장관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 왕국은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제일 먼저 신령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섬김과 봉사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사들(32~34절)로 인해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다윗을 통해 미리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 구원을 예표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지혜를 얻어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 내 명예와 내 실력을 가지고 모사를 쌓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사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대상 27:32)

기도 제목 ① 주의 나라가 우리 안에 견고히 임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죽기 전에 다윗은 신하들과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다윗은 먼저 신하들에게 유언합니다. “……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8절) 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9절)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신하들과 솔로몬이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많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골 1:26~27)을 믿음의 유산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진짜”이며 “답”임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은총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녀가 됨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대상 28: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회학교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은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건축을 위해 물품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감명을 받아 정성을 다해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금, 은, 놋, 철, 나무, 보석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자기 개인의 소유한 금, 은까지 드렸습니다. 오빌의 금 3,000달란트(약 103톤), 순은 7,000달란트(약 240톤)를 준비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친 것은 금 5,000달란트, 금 다릭(약 130g의 금전) 일만 개,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와 각종 보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다윗은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음'(요일 4:9)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게 됩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 십자가를 증거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대상 29:11)

기도 제목 ① 매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② 총천의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지도자들,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지은 성막이 있었고, 놋단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대하 1:7b)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10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였기에 그 백성을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힘입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대하 1: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를 통하여 총현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성전건축을 위해 두로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전건축에 사용될 필요한 물건들과 기술자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로 왕은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송축을 받으실 자로다” 그리고 솔로몬의 요구에 따라 사람과 재료를 보내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집꾼(나르는 사람) 70,000인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0,000인과 감독자 3,600명을 세워 성전건축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성전건축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섭리 속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때가 찰 때까지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구원의 사역 속에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구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옴바로 보내 리니 당신은 재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대하 2:16)

기도 제목 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건축 준비를 마친 솔로몬은 성전건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성전건축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일찍부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한 나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창 22:13~14) 바로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요 1:29)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모두 정금으로 입히고 장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그룹 천사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였습니다. 셋째, 솔로몬은 성전 앞에 오른쪽에는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과 왼쪽에는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알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건축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양식에 따랐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사역과 삶은 오직 영원한 계시인 성경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도 ……”(대하 3:1)

기도 제목 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② 양로원, 납골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기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건축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와 같은 외형적인 공사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제사에 직접 사용되는 성전기물을 제작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했습니다. 성전기물을 제작한 기술자는 두로 왕이 보낸 후람이었습니다. (11절) 후람은 이방인 금속세공 기술자입니다. 그는 세속적인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영광스럽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기물을 제작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롬 9:14~18)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예표합니다. 놋단과 놋바다, 물두멍 같은 것은 제사장과 제물을 정결케 하는 기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통한 구속사역을 뜻합니다. (히 10:22) 또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가장 값진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예표합니다. (딤후 2:21) '솔로몬의 놋단' (1절)은 모세 시대 때 성막에 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성전 밖 뜰에서 경배하던 사람들조차도 희생제물이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통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으며 모든 인간은 이것을 바라볼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옷까지 벗기는 잔인하고 처절한 십자가의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십자가와 보혈은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증거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대하 4:1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에 쓰일 기물을 만드는 일을 모두 마친 후, 일찍이 부친 다윗이 구별하여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찾아 성전 공간에 두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행 5:1~4) 그런데 우리 자신이야말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첫 번째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고전 6:20)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마침내 솔로몬은 칠월 절기 곧, 초막절을 기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평화와 안식의 날인 초막절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레 23:34~36) 언약궤가 봉인될 때에 여호와와 영광의 구름이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감격스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성전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중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 임재의 가장 절정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증거되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순종함으로써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고전 6:20)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대하 5:7)

기도 제목 ①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와(1~3절), 성전건축의 역사적 배경(4~11절)을 소개하면서 성전건축의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과 부친 다윗에게 돌립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노라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눅 17:10) 기념사를 마친 후 솔로몬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부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굳게 지키시고 그 모든 말씀을 확실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이곳 성전에 임하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때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 솔로몬의 기도는 장차 온 세상 만민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것을 예견하고 드린 기도입니다.(사 2:3)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와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린 내용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세상에서 보전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요 17:11)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선교지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대하 6:2)

기도 제목 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 ② 예배 때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1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자 제사장이 능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 백성들과 함께 7일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5~10절)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말씀하셨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혹 범죄하여 재앙을 받을 때에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버리고 겸비하여 이 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4절) 그런데 만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땅에서 뽑아내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전도 모든 민족 중에서 버려 경계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19~20절)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 구약의 구속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도 기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십자가를 전하라고 외치는 말씀을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대하 7:4)

기도 제목 ① 우리에게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훈련에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영을 이루는 솔로몬은 여러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주로 백성의 거주와 국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방어를 위해 전략 요충지에 성을 쌓고 군사를 두게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으로 역군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저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가나안 족속의 압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장차 임할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됩니다. 장차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계 20:6)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실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가 행한 모든 지혜로운 일들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왕상 11:9~11)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 하옵소서. 교만하여 주 떠나지 말게 하시며 내 생애 마치는 날까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기에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대하 8:16)

기도 제목 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② 천천의 모든 성도들이 제2차 청지기 훈련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 주는 실례로 스바 여왕의 방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접견하고 나서 왕의 지혜로운 말과 왕궁의 규모와 화려함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 왕과 그 신복들과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8절) 솔로몬의 부와 영광, 그리고 그의 지혜와 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그의 나라를 보면서 장차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계 21:22)

예수님은 남방여왕의 방문을 비유로 사용하시며, 장차 온 세상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나아올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눅 11:31)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여왕이 먼 길을 떠나 찾아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의 대답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 섰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감춰져 있고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경건의 비밀을 알지 못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를 믿는 은총뿐입니다. 은총의 비밀인 십자가, 나를 용서해 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대하 9:23)

기도 제목 ①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청지기 훈련 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목사님을 성령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분열의 책임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르호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이었던 것입니다.(왕상 11:11~13) 우리는 여기에서도 다윗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만으로도 다윗 왕조는 몇 번이고 망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밧에게 허락한 은혜의 언약(삼하 7:8~16)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의 집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즉, 다윗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사 9:6)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요 14:27)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요 12:27) 회개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누구나 적서 주시며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으며 이 놀라운 비밀의 은총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며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 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따르기 원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아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대하 10:1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므로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종들의 심령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분란의 아픔을 딛고 평정을 되찾은 남왕국 유다의 강성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군대를 일으켜 잃어버린 10지파를 되찾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선포한 중지 명령을 듣고 자신의 의지를 꺾게 됩니다.(1~4절) 르호보암은 애굽의 침공에 대비하여 유다 남쪽 국경을 요새화합니다.(5~12절) 한편 여로보암이 우상숭배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며 악한 통치를 일삼자 이에 반발한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13~17절) 르호보암의 왕국이 점차적으로 강성해진 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성도란 대다수의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는 자입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의 분열을 초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국분열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무조건 그 현실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진정 자기 욕심과 감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디며 이 길을 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셨습니까? 믿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하고자 한지라”(대하 11:16)

기도 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제2차 청지기훈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족보는 이 장에서 1부에서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르고, 제 2부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제 3부는 예수님까지 이르는데 이는 메시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4여인인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룓,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한 다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족보를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진정 깨닫습니다. 구약 율법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에 있어서 하찮은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비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라는 엄청난 비밀을 깨닫기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을 깨달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마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상호 연결된 것이며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한 뜨거움과 가슴 벅찬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21절)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서 버려진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천국의 비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기도 제목 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기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2절)라고 묻은 동방박사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4절)고 물어본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약을 붙들고 성경을 연구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를 인용하여 정확히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 계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6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종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을 붙들고 있었지만 메시아 탄생을 찬송할 수 없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관이요 세계관 속에 못이 박힌 의와 거룩함 때문에 반대편에 선 것을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로 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부터 그 아래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는 역설적인 사건이 성경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라는 말씀과 같이 믿는 자를 찾을 수 있는지요?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연구하지만 십자가의 은총과 멀리 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믿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역설이 성경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2)

기도 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학습 및 세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3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가 40장 3절의 인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와 그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여 그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절)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마 4:17 ; 막 1:14~15) 이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십자가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애통하며 회개를 하였습니까? 또한 회개의 복음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 외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복음과 생명만 남습니다. 단기선교에 모두 동참하여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2)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19절) 말씀하시며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18~22절) “부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에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눅 5:10)라는 말씀이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복음으로써 생명으로 인도 하는 직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지 노력이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학문 없는(행 4:13) 어부들은 장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가 성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후 동네에 나가서 말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요 4:29) 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던”(20,22절) 제자들과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해야합니다. 너무나 계산이 빠릅니다. “너희가 해야리는 그 해야림으로 너희도 해야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경고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계산법에서 제자들의 따름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 의견이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마 4:19)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영혼구원을 위한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를 선포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직접 설교하신 산상수훈입니다. 특히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인 팔복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과 끝이 천국에 대한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하늘나라의 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회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3~10절)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팔복을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 선행구절의 실천보다, 뒷 부분인 “천국이 그들의 것, 위로를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배부를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천국이 그들의 것”(3~10절)이라는 복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세상의 복만 찾는 심령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복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애통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몸부림치면서 애통해 한 경험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연이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하고 박해를 받을 때 진정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11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린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의 회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회원이 되는 은총입니다. 이 복은 십자가의 길에서만 받을 수 있기에 십자가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육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제, 기도, 금식을 함께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의를 말씀합니다. (1~18절) 또한 각 단락의 끝마다 예수님은 순결한 자세로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종말론적 상급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 18절)고 분명히 예시하심으로써 성도의 헌신에 큰 격려를 하십니다. 유대교인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5~6절), 중언부언하는 기도 (7~8절)와 대조적인 주기도문을 예시합니다. (9~13절)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찬양과 고백이며 천국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의 실천인 구제, 기도, 금식을 변론하심으로써 유대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형식적 실천과 대조시켜 겉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 하십니다. 모세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미운 존재였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배척당할 것 같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셔야 했던 심령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원합니다.

인간의 의와 실천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임을 깨달으십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 앞에 깨지고 자기부인을 하는 듯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의 의를 이루는 비밀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천국시민의 생활에 있어서 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13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눅 13:23)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눅 13:24)과 일치함으로 더욱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뜻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거니”(14절) 때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좁은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옛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그것은 쓴 뿌리가 되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나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죄악의 쓴 뿌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송두리째 뽑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셨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함께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비밀(행 7:55~56)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 7:14)

기도 제목 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금요구약예배가 보혈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금요찬양집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병환자를 고쳐 주시고(1~4절),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시고(5~13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과 귀신 들린 많은 자를 고쳐 주시며(14~16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28~34절)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며 믿지 않았습니다.(29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34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후 부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20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를 따르면 많은 부귀영화를 얻을 것 같아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19절) 하는 한 서기관(19절)을 향하여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22절) 하십니다.

돼지들이 죽은 것만 아까워했지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 예수님만이 진짜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진정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고백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마 8:3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가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22절)는 말씀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빌어 “신성을 모독하도다”(3절)고 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5절) 물으시며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선포는 종교지도자들이 볼 때 율법을 철저히 믿는 그들의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하였고 병든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가 쓸 데 없었으며 제사를 원하고 공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의인이었고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12~13절)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림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합니다.(20~22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27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추수할 일꾼은 적다고 말씀합니다. 추수할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동참할 진실한 복음증거자입니다. 이 땅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36~38절) 하시는 부르심에 복음을 증거하는 순종의 삶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8)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며 복음사역 현장에 파송시키십니다. 복음전도자의 자세(5~15절), 핍박 상황에서의 복음증거자의 자세를 핍박에 대한 인내와(16~23절)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24~39절) 복음과 세상과의 대립(34~39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40~42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선포의 절대적인 사명과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 갈수록 더 많은 핍박과 세상적인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기도 합니다.(35~36절)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만 들어서 그것 다 아는 것인데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불평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슴으로 맞이하며,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버리는 사람, 즉 자기에게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의 삶을 얻게 됩니다. ‘버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주님은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38절)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절대적인 요구에 기쁨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마 10:4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의 보좌에 모시고 살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6월 구역교재 초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히 2:3)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의 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일로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대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530	히 2:3	어찌 그 보움을 피하리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0606	행 26:16~29	바울의 증언	참된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0613	눅 4:18~19	성령강림	성령충만함을 받으라
0620	요 14:1~9	신자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0627	막 4:35~41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라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결론 및 적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과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 초 점 |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 찬 송 |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본 문 | 히브리서 2:3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총을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은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은사와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히 23

※ 지난 주간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재테크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공에 관한 책을 읽으며, 오락 프로그램을 즐기고,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명예나 사회적 지위에 관해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실전 5:2~3

렘 11:11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닌 세상에 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원은 해방과 안전에 관한 것이다

구원은 해방과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 구원의 문제가 왜 중요한지 말해 보십시오.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지옥의 그림자가 눈앞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순간순간 멸망을 향해 점점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롬 3:23 / 모든 사람이 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6:23 / 의 값은 이요 하나님의 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니라

죄가 있는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요 3:16

구원은 위대하다

구원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히 2:3 / 우리가 이같이 을 등한히 여기면

롬 3:25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단순하다 할지라도 지극히 위대한 진리임에는 분명합니다.

요 3:36 / 을 믿는 자에게는 이 있고 아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구원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송과 그 이유를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 변화된 삶, 구원받은 자들과의 교제 역시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합니다. 천국에 관한 것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전 15:49 / 우리가 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에 속한 이의 을 입으리라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구원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입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받는 보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누가복음 16:19~31 말씀을 읽은 후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받을 참혹한 보응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심판의 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등한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후회와 비통함이 어떠할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구원보다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거의 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뭇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계 20:12

계 20:15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 14:6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하십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벧전 1:9

롬 2:5

막 1:15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무시한다면 우리에게 종말은 영원토록 비참할 것입니다. 재림의 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영원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진실로 믿게 하소서
2. 세상을 의지하였던 물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2과 바울의 증언

| 초점 |

참된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 찬송 |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 본문 | 사도행전 26:16~29

¹⁶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¹⁷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²⁸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²⁹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변호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특별한 상황을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 지난 주간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세주가 아니면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최종 도착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롬 3:23

롬 6:23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증언하였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혼의 최종 도착지를 바꾸셨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영혼의 최종 도착지를 바꾸셨는지 증언했습니다.

※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	다메섹 사건	예수님을 믿은 후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율법의 일점일획까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던 도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행 9:3)이 나에게 어떤 곳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울의 최종 도착지는 천국이었습니다.

빌 3:20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는지 증언했습니다.

※ 사도행전 9장을 읽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겪은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행 26:16~18 /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에서 □□으로, □□의 권세에서 □□□□께로 돌아오게 하고 □□□□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 예수님을 믿은 후 달라진 나의 생각과 언행을 한 가지씩 말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술한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빌 3:8~9

갈 6:14

마음의 소원을 바꾸셨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증언했습니다.

행 26:29 /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_____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설사 그것이 죽음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빌 1:20 / 나의 간절한 ☐☐와 ☐☐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였고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롬 8:9

※ 에베소서 6:19 말씀을 읽은 후 나의 기도 중에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갈 6:17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순간에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 영혼의 최종 도착지는 어디입니까?
- 지금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 세상쾌락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딤후 1:15

한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볼 때 바울의 증언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그 믿음을 실천하였습니다. 바울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거듭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참된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복음을 위한 삶이 되도록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3과 성령강림

| 초 점 |

성령충만함을 받으라

| 찬 송 |

찬송가 183장 빈 들에 마른 풀같이

찬송사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 본 문 | 누가복음 4:18~19

¹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¹⁹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눅 3:21~23 /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때 마침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모여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 누가복음 4:18~19 말씀과 이사야 61:1~2 말씀을 비교한 뒤 내용을 요약해 보십시오.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 14:16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임하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눅 4:1 /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에게 이끌리시며

※ 예수님께 성령님이 필요했던 이유를 써 보십시오.(설교문 참조)

※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초대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행 2:4

행 6:8,10

※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설명해 보십시오(사도행전 8장 참조)

베드로, 바울, 그리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해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신자들 등, 성경은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막 16:20 /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시니라

오늘날의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임하십니다.

※ 우리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증거를 말해 보십시오.

행 10:38 /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_____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님은 교회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인간이 만든 율법과 전통을 깨뜨립니다. 대신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요 15:16

※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참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미래의 교회에 임하실 성령님

성령님은 미래의 교회 위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눅 19:13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거나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원동력은 성령님입니다.

벧전 2:9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심령에 강림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해질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행 1:8

행 1:4~5

성령강림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은 초대 교회를 거쳐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충만합니다. 성령충만함을 입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성령님이 강림하시도록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성령에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을 주소서

4과 신자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

| 초 점 |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 찬 송 |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 본 문 | 요한복음 14:1~9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㉑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㉒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㉓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3년간의 공생애 중에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마 16:21

마 17:22~23

마 20:18~19

제자들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베드로, 도마, 빌립과 개인적으로 나누셨던 대화를 살펴보면 그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나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심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위암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베드로의 근심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할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요 13:36~37

※ 확고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13:38)

베드로는 예수님과 헤어질 것에 대해 근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것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떠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도마의 근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도마는 근심하였습니다.

요 14:4~5

예수님과 헤어질 것을 근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14:6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써 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존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도마와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의 근심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천국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계셨을 때 빌립도 근심하였습니다.

요 14:7~8

※ 빌립이 근심했던 이유와 근심하는 빌립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요 14:9)

빌립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근심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빌립과 같은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근심의 그림자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을 때 근심하는 삶이 됩니다.

요 14:1 / _____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적인 것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결코 평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 1:14,17

우리가 근심하는 까닭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

빛이 있을 때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근심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요 1:4,9)

요 14:1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십니다.

요 14:2~3

벧전 1:6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천국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을 만드신 분이요 천국을 나타내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의 완성자이시며 안내자이십니다. 이제 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2.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근심이 사라지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소서

5과 그가 누구이기에?

| 초 점 |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라

| 찬 송 |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 본 문 | 마가복음 4:35~41

☞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⁴³⁾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⁴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해변 근처에 있는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등불, 자라나는 씨, 겨자 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이유와 내가 피곤한 이유를 비교한 뒤 나누어 보십시오

히 12:3

길고 고된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나에게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의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_____ 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함께 길을 떠나자고 제안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막 4:35 /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_____
_____ 하시니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막 4:36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는 여행은 순탄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벧전 4:12~13

요 16:33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있어 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막 4:37 / 큰 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서 만난 광풍은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세찬 바람, 높은 파도, 격한 흔들림, 번쩍거리는 번개는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부숴버릴 것 같이 제자들을 위협 하였습니다.

※ 현재 나의 삶을 위협하는 광풍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고후 7:5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는 광풍같은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광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풍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롬 8:35 / 누가 우리를 _____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엡 3:13 /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에 대하여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이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막 4:38~40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 40:26 /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_____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_____

눅 12:7 /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_____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빌 2:6~7)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히 4:15)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 나의 삶에 일어난 광풍 속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말씀)을 써 보신 뒤, 그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파도가 멈추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추고 들려오는 것은 가벼운 배의 움직임과 빠르게 뛰는 제자들의 심장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고요해진 밤의 정적 속에서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막 4:41 /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_____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 예수님이 누구신지 써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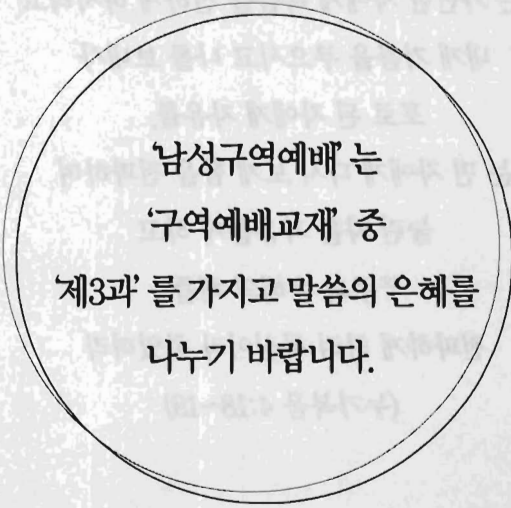
- 예수님은 _____ 다.

인생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소서
2. 인생의 광풍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성령강림

⁽¹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¹⁹⁾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18~19)

안식일에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회중들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 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 4:18~19) 이사야 61:1~2을 읽으신 후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임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는 인간의 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눅 4:1) 고통 받는 자, 상심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끌고 온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기나긴 고통과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자신에 대해 말한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초대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초대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행 8:26) 그런 다음 성령님은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8:29) 마침내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행 8:39)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역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심지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행 6:8) 스테반이 설교했을 때 그를 대적하던 자들도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행 6:10) 그가 예루살렘의 성난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를 주목하여 본 모든 사람들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행 6:15)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오직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해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신자들 등 성경은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20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날의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임하십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보내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10:38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또한 신자인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행 10:28)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행 10:34~35) 복

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에 임하실 성령님

성령님은 미래의 교회 위에도 임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13은 말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거나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이 집, 학교, 일터 심지어 감옥이나 그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원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증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행 1:4~5)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성령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까지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만방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준행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08년 6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